



폐자원에 생명 불어넣는 자원순환의 거점 서울새활용플라자

글 윤혜원 사진 조재은

새활용의 모든 것을 모아둔 공간

쓰레기로 인한 환경 악화가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지금, 현대인들에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평생의 숙제가 되었다. 덩달아 새활용(upcycle)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새활용은 매일 버려지는 폐자원들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빈 페트병을 활용한 상들리에, 폐현수막으로 만든 옷 등이 그 예다. 새활용에 대한 시민인식과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문을 연 공간이 바로 서울새활용플라자다. 2017년 9월 개관한 이곳은 '새활용의 모든 것을 모아둔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특화시설 중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지상 1층에는 새활용 시제품 제작지원을 위한 복합공간과 의식주를 주제로 구성된 체험공간을 운영한다. 지상 2층부터 4층까지는 새활용 기업과 연구소, 디자이너 스튜디오 등의 다양한 입주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다.



새활용이 일상이 되는 체험

현재 새활용플라자에는 많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자원순환 이야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도슨트 탐방과 제로웨이스트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교육은 자원순환을 주제로 하며, 폐목재나 과자봉지 등을 활용한 입주기업 키트 체험이 진행된다. 1층 '꿈꾸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버려진 소재를 활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이 공간은 새활용과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실험실로, 멤버십 현장 신청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사전 신청을 통해 수공구 및 목공 장비, 레이저커터, 3D 프린터 등의 장비 안전 교육을 마친 뒤 제작이 가능하다. 꿈꾸는 공장을 지나 로비로 나오면 다 쓴 택배 상자로 만든 거대한 하마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로봇이 눈길을 끈다. 폐자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함을 자랑하는 작품들은 감탄을 불러일으킨다.



작품을 관람한 뒤에는 3층과 4층에서 입주기업의 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새활용 제품들을 천천히 둘러본다. 홈페이지에서 입주기업들의 새활용 DIY 키트를 만드는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기업에는 홍보와 협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활용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버려지는 자원을 사고파는 은행

새활용플라자의 지하 1층에는 '소재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소재은행은 새활용 소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소재를 구입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새활용 디자이너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어 새활용 소재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 짓는 곳이기도 하다. 복도에 전시된 종이, 유리, 목재 등의 다양한 새활용 소재들을 보며 걷다 보면 소재은행 입구에 다다른다. 안쪽에는 폐기물별로 분류된 소재를 직접 보고 만지며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자원을 쓰고 바로 버리는 '선형 경제'에서 끝없이 순환되는 '순환 경제'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활용플라자의 운영 방향이 고스란

히 느껴진다. 발걸음을 옮겨 소재은행 중앙에 전시된 폐자원을 새활용해 만든 제품들을 살펴본다.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로 취급되는 소재들의 변신을 통해 어떤 소재도 순환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새활용의 일상화를 돕는 소재은행처럼, 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6

- ① 서울새활용플라자 전경
- ②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내부
- ③ 페트병을 활용한 상들리에
- ④ 다양한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입주기업
- ⑤ 소재 샘플들이 전시된 소재은행
- ⑥ 택배 상자를 활용한 하마 조형물